

01 교회소식

은혜와 감동을 전하는 부활절 공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곡들과 기획으로 주님 사랑에 흠뻑 젖게 하는 우리 교회 부활절 공연을 소개한다.

02 생명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악으로 놀러 참는 것이 아닌 선으로 오래 참아 기다리는 영적인 사랑에 대해 알아본다.

03 신앙상담

왜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이 상대성을 체험하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다.

04 간증

만나 주시고 체험케 하신 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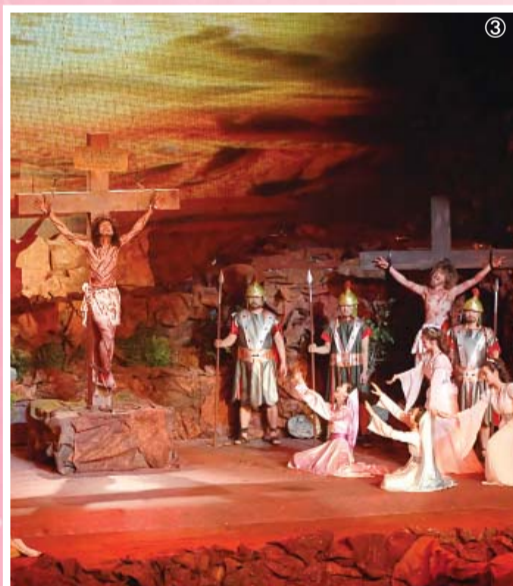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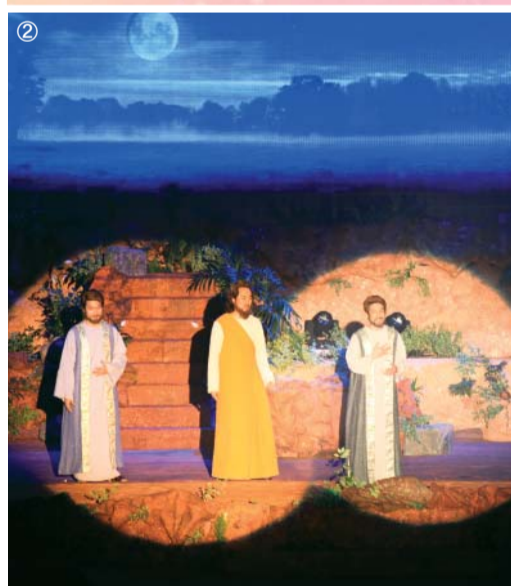
치료받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선우 집사와 휴대폰으로 희한한 일을 체험한 말레이시아 라젠드라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628호 2014년 4월 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무대 위에 펼쳐지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공화

### 예능위원회 주관 부활절 공연 '눈물' 준비에 한창



- ① 2013년 부활절 공연 <주는 그리스도>
- ② 2012년 부활절 공연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 ③ 2011년 부활절 공연 <주님 가신 길>
- ④ 2010년 부활절 공연 <우리 주의 사랑>
- ⑤ 2009년 부활절 공연 <회상>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내 마음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 올린 간절한 사랑의 기도. ‘눈물’을 주제로 예능위원회에서 2014년 부활절 공연 준비에 한창이다.

이 공연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순교 장면으로 시작해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부활, 승천 등을 무대 위에 감동적으로 그려낼 것이다.

총감독에 예능위원회 위원장 이희진 목사, 음악감독에 예능위원회 총무 이진 집사, 지휘는 닛시오케스트라 부지휘자 김한구 집사가 맡았다. 또한 예능위원회 소속 예능팀들과 연합성가대가 함께하며, 외부 공연 전문 스태프들의 조명과 특수효과가 더해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마다 부활주일 전 금요일야예배 2부에 열리는 부활절 공연은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과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다. 특히 2009년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곡들과 기획으로 제작돼 은혜를 더했다.

2009년에는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겔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어 지난날을 회상하시는 모습이 특수 촬영과 함께 실감나게 그려졌다.

2010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참회의 고백이 담긴 ‘우리 주의 사랑’이 공연됐다.

2011년에는 ‘주님 가신 길’이라는 타이틀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처형, 부활, 승천의 현장 속에 함께한 천사들의 모습을 무용극으로 표현했다.

2012년에는 사도 바울의 회상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랑을 되새기는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2013년에는 주님의 부활 후 막달라 마리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회상하며 전개되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공연으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전달했다.

한편, 성도들은 부활절을 사모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내고 있다.

부활절 공연은 4월 18일 금요일야예배 2부 시 본당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GCN 방송(www.gcntv.org, m.gcntv.org)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4~7)

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사랑의 정의에 얼마나 합당하게 행하는지를 정확히 측정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랑을 이룬 정도를 1%에서 100%까지 나눈다면 100%가 돼야 온전한 하나님 사랑의 차원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 지키면 1%만큼, 50% 지키면 50%만큼 영적인 사랑이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사랑을 이룬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도 다르며 권능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요 14:21).

## 2. 영적인 사랑의 기초가 되는 오래 참음

사랑의 정의에서 오래 참음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사랑을 100% 이루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래 참음이 부족해 10%만 이루고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그 이상의 차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10%를 이뤘다면 10%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총을 입고, 나머지 90%는 원수 마귀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참음과 영적인 참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참음이란 화가 날 일이 생겼을 때 억지로 화를 누르며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참음은 악 속에서 참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참음 곧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이 같은 참음이 아닙니다. 선으로 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전혀 없으시므로 참을 일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신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선과 진리 가운데 참고 참아서 악을 빼내 버리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서가 되므로 참을 일이 없어지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사랑하기에 참는 다라는 말 자체가 필요없는 참음입니다.

## 3. 사도 바울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훼방한 그가 주님을 만난 후로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하며 동족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에 가깝게 이르렀는지 알 수 있지요.

이러한 사랑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오래 참으심으로 사도 바울을 기대하며 기다리셨을까요? 주님께 부름받기 전, 사도 바울 역시 외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교법사인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자라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율법적인 자기 의는 하나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많은 연단의 시간을 통해 자기 의와 지식이 깨어진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을 택해 모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 뜻을 이뤄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능을 받아 큰 일들을 이뤄 가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모든 연단을 인내로써 이겨 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맞춰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했는지 알 수 있지요.

## 4. 영적인 오래 참음을 이루려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

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소망 중에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돼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도 돌을 던지는 사람에 대해, 또한 내게 오는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 오래 참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 다시 말해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온유하지 못한 것, 투기하는 것, 교만한 것,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 등 이러한 모든 것을 참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믿음 안에 소망을 이루고 소망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므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일까요? 예를 들어, 부부간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존중해 줍니다. 설령 의심할 만한 경우가 있더라도 먼저 선으로 바라보며 믿어 주려 하지요. 믿음 자체가 곧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의 모든 것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며, 사랑으로 상대를 믿어 줄 때 또한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처럼 영적인 사랑으로 바라봐 줄 때 상대방이 더욱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보통 오래 참는다고 하면 많은 시간 동안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함으로 오래 참는 것은 결코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 오래 참는 것도 즐겁고, 기다림의 세월이 길었던 만큼 그동안 느낀 그리움과 아픔이 오히려 더욱 진한 사랑으로 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사랑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곧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변치 않으며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참된 사랑입니다. 반대로 육적인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며 변질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7절에는 영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가 1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로 오시는 길**

7호선 남구로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교회버스** (교회 차량 /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차: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공요철차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 선악과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이들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할 줄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A** 흔히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셔서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셨나요?”라고 묻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모르셨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죄인 된 인류를 구원할 길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 전에 예비해 두셨지요. 그렇다면 선악과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무엇일까요?

##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 가운데 선악과를 먹은 결과

첫 사람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에 대해, 영의 세계에 대해, 진리와 선과 빛에 대해, 많은 영의 지식을 배웠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식들도 가르침 받았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놀라운 지식과 지혜로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으며 번성했지요(창 1:28, 2:19, 3:16).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에덴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흠으로 창조된 생명이기에 만일 불순종하면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에덴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경계하셨지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무수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하나님 명령을 명심하지 못하게 됐지요. 하와가 평소 가까운 뱀의 유혹을 받아 자유의지 가운데 선악과를 따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하신 말씀대로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죄의 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하신 말씀은 영혼육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주인 된 영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본연의 활동을 못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이 죽으면 결국 사람의 몸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 자신만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후손까지도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담의 주관 아래 있던 이 땅의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게 돼 아담이 직접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경작을 해야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됐지요(창 3:17). 또한 저주받은 땅에는 전에 없던 각종 질병과 해로운 생물들도 생겨났고, 사람들은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 한난 속에 많은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더욱 큰 저주를 받았지요(창 3:14).

## 상대성을 체험케 해 참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살던 에덴동산은 매우 아름답고 편안하며 부족함이 없는 곳이지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불행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나 죽음, 사고 등을 겪어 본 일이 없고, 그로 인해 슬픔과 고통을 당한 일도 없지요. 사망도 없으니 이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의 참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것을 체험해 상대성을 알아야 하듯이 참된 행복을 알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행복의 참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질병에 걸려 고통을 겪으면 건강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굶주림을 알아야 풍성한 음식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악이 있어야 선이 얼마나 좋은지, 어둠이 있어야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또 가난을 모르면 부요함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미움이 없으면 사랑이 좋은 줄도 모르지요.

첫 사람 아담 역시 불행이 전혀 없는 에덴동산에서 살았기에 자신의 행복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겪어 본 일이 없었기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하셨어도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매우 사랑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진정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갖가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함, 추위와 더위, 죽음, 이별, 그리고 죄악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들을 경험하면서 에덴동산에서 살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지요. 이처럼 피조물인 사람은 체험하지 않고는 상대성을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심으로 상대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흠으로 창조된 첫 사람 아담의 후손이기에 이 땅에서 경작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천국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마음 중심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불행도 없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마음 중심에서 느낄 수 있기에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세토록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참 믿음과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직 감사와 기쁨만 있습니다(고후 4:17-18).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천국 소망 가운데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4** April

이대륙 목사의 생명의 말씀

2014.4.6~4.12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2-4
- 1차 영혼육 1-2
- 위로부터 난 지혜 8-9
- 생명의 씨 1-3
- 창세기 강해 91-95
- 천국 37-41 • 사랑장 1-3
- 우리 삶의 등불 12

GCN TV 설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이수진 목사)
- 기쁘시게 하는 자 1(이미경 목사)
- 영의세계 13/말씀 1(이희선 목사)
- 생명수 5/결단 3(신동호 목사)
- MIS강의 6/축복과 저주(정구영 목사)
-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이성환 장로)
- 참자녀 (박홍기 장로)

예능 프로그램

- 일곱달콩 어여쁜 울동 21
- 찬양드려요 20-21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6
- 향기 20-21 • English 10-11
- 플러리스트 3-4
- 찬양과 경배(3) 72-78
- GCN 금요찬양 스페셜

신규 프로그램

- NEW 즐거운 요리 1-2
- NEW 옛날 옛적에 1
- NEW 만민지킴이 1
- NEW 모두드려요 1-2
- NEW 흥겨운 소리 1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Spring

GCN방송, 봄 개편!!

봄 개편을 맞아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GCN 방송

# “기흉과 고질병인 폐질환이 치료돼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저는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폐가 손상돼 폐수술(흉관삽관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감기나 기관지염에 걸리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몸도 아픈데다 영적인 상태도 매마른 땅처럼 곤고했습니다. 이를 해소해 보고자 국내외 저명한 목사님들의 저서를 구입해 읽고 기도해 봤지만 그때뿐이었고, 저의 영적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지요.

2010년 1월, 율케(이선옥 집사) 집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영혼육』을 보고 읽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새 예루살렘(계 21:2), 인간경작의 계획하심, 온 영(살전 5:23) 등 지금까지 어디서도 배우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 놀라웠습니다. 그해 6월, 이재록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던 저는 그해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 특송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감기에 걸리거나 호흡기 질환으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병원을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에서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특송을 올리는 제 자신이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2013년 12월 6일 금요일야예배 특송을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이때도 어김없이 감기증세가 나타났고 점점 기침과 가래가 심해졌습니다. 특송 날짜에 임박해서는 객혈과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가슴통증까지 동반됐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치료받으리라.’ 결심했기에 병원에 가지 않고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님과 예능위원회 위원장 이희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무사히 특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온전히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병원에서 다시 정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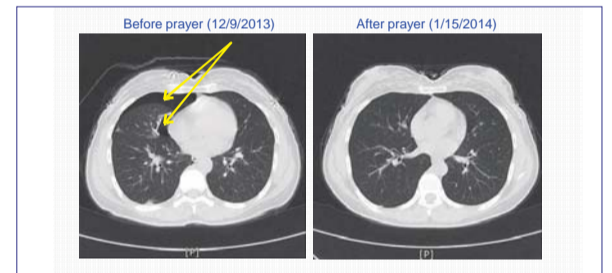
이선우 집사 (1대대 2교구, 49세)

진단을 받았습니다. 흉부 CT 촬영 결과, 오른쪽 폐에 이상이 있고 재발성 기흉(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늑막강 내에 공기가 차는 것으로, 공기의 양이 점차 증가할수록 폐가 정상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기도 중이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하산하시기까지 제 자신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돌아보며 기도했습니다.

특송할 때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마음,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마음 등을 회개했습니다. 그런 후에 치료받기 위해 정성껏 기도받을 준비를 했지요. 마침내 12월 29일, 간절한 마음으로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침은 그 즉시 멈췄고, 가래도 점점 줄더니 그 다음 날에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저는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와서 2014년 1월 15일,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기흉이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건강한 폐가 됐습니다.”라고 희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질병인 폐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기도받기 전(2013. 12. 9) : 우측 폐에 기흉 현상(노란색 화살표).  
▲▲ 기도받은 후(2014. 1. 15) : 기흉이 소실되고 정상인 됨

## 라젠드라 프라사드 비스트 성도 (말레이시아 거주)



## “설교를 저장한 휴대폰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네팔,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나 우상을 섬기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말레이시아 비자를 받기 위해 수도 카트만두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여 동안 외숙모(무나 바타 성도) 댁에서 지냈습니다. 외숙모는 네팔만민선교센터(담임 이혜천 목사)에서 근무하고 계셨지요.

외숙모는 서울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7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셨으나 하나님을 만나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곧바

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네팔만민선교센터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로 출국하기 전, 당회장님의 설교 80여 편을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첫 주 동안은 매일 5편이 넘는 설교를 듣고 1시간 이상 기도했지요. 그 후 히어로우 슈퍼마켓(Hero Supermarket)에서 일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감사해서 수입에서 먼저 하나님께 십일조를 떼어 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 화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모습이 두 번이나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과 더불어 5

분 정도 기도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는 찬양 소리가 들렸지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5분 정도의 기도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였답니다. 제 휴대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진이 없었기에 어안이 병병했지요.

저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감사했습니다. 이후 휴대폰에 저장한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배려하고 선대하라는 말씀대로 직장에서도 성실히 일하면서 실천하고자 노력했지요. 그 결과 인정받아 월급도 많이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북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1/3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번지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7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10호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말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4863-9857, 010-7127-2073
- 결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방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